무지 중수수지관절 척측부인대 파열(Skier's thumb)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관절경의 유용성

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전철홍 · 김동철 · 송하헌 · 정을오

서론

무지 중수수지관절 척측부인대 손상(Skier's thumb, Gamekeeper's thumb)은 완전 파열시 파열된 인대의 연속성을 방해하는 Stener 병변 때문에, 다른 수지의 측부인대 손상과는 달리 수술적 치료인 탐색술 및 봉합술을 시행하고 있다. 저자들은 무지 중수수지관절 척측부인대 파열에 대해 관절경을 이용,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고, 그 결과를 파악, 관절경적 수기에 대한 효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재료 및 방법

무지 중수수지관절 척측부인대 완전파열로 관절경적 진단 및 치료를 받고 1년 이상 추시 가능하였던 13례(남자: 9례, 여자: 4례)를 대상으로 하였다. 평균 연령은 35.6세(21~46세)였으며, 7례 스키, 3례 축구, 2례 테니스, 1례 유도를 하던 중 발생하였다. 13례 모두에서 supraclavicular block을 시행하고, 상완부에 pneumatic tourniquet을 장착하였다. 관절의 신전건주위 양측에 2 mm 크기의 피부절개를 하고 직경 1.9 mm(Storz, Germany)의 관절경과 probe를 이용, 척측부인대 손상 및 Stener 병변의 존재 여부, 관절내 동반 손상 여부를 확인하였다. 5례(39.2%)에서는 Stener 병변이 존재하여 probe를 이용, 파열된 인대의 말단부를 반대측 말단부에 접촉시켜 인대의 연속성을 회복시켰으며, 나머지 8례(61.8%)에서는 관절경적 변연절제술만 시행하였다. 전례에서 K-wire를 이용 고정을 2주간 실시하고, 그 후 K-wire를 제거하고 능동적 관절운동을 점진적으로 시작하였다. 결과 는 관절의 불안정성 여부, 환자의 만족도 및 합병증 등으로 판정하였다.

결과

5례에서 Stener 병변이 관찰되었으며, 전례에서 수술 후 관절 불안정성이 없었고, 집게력도 건측과 비슷하였다. 환자 모두 수술에 대해 만족감을 호소하였으며, 합병증은 없었다.

결론

Skier's thumb에서 관절경 수기는, Stener 병변의 확진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, 짧은 수술 시간과, 수술에 의한 연부조직 손상을 최소화시켜 조기 기능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치료 방법으로 사료되었다.